

김남훈

변호사

상법

변호사시험대비 Step 1

강의계획서

단권화정리

- 상법의 모든 출제예상 쟁점을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완벽하게 학습
-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여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
- 키워드 중심의 간결한 답안작성을 위한 판례와 이론의 핵심내용 요약정리
- 민법 · 민사소송법 및 민사실무과목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는 쟁점까지 강의
- 핵심암기장을 통한 사례풀이 연습 및 답안작성을 위한 키워드 암기
- 매일 쪽지시험과 주 1회 사례형 시험을 통한 실전용 연습

일 정

2017. 5. 25(목) ~ 6. 7(수), 총 18 회, 월~금, 오전 · 오후

오전강의 오전 8시 30분 ~ 12시 30분

오후강의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교 재

- Essential 상법 제4판(저자, 근간)
-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제2판(저자, 제공)

강 의 특 징**I. 상법의 출제경향****1. 선택형**

- 상법 선택형은 총 70문제 중에서 평균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회사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지문도 판례의 태도를 묻는 전형적인 선택형 문제부터, 상장회사의 특례조문이나 상법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 사례형은 총 350점 중에서 100점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100점 중에서 70점 ~ 80점 정도는 전형적으로 중요한 예상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법 부분이 출제되고 있지만,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협의회 모의시험에서는 보험자대위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3. 기록형

- 기록형에서는 매년 상법의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양도, 상사매매,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백지어음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형에서 상법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상법의 학습방향

- 상법은 회사법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선택형에서는 50% 이상이 회사법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사례형에서는 회사법이 100점 이상의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례형에서는 회사법 이외에 상법총칙의 중요 쟁점도 학습해야 합니다.
- 또한 기록형에서도 상법의 중요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회사법의 중요 쟁점인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상법 총칙의 중요 쟁점인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표현대표이사와 백지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6회 시험에서는 상사매매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 테마에 대하여는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 테마에 대하여는 기록형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선택형에서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하여 조문(시행령 포함)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상법전을 읽으면서 해당 부분을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시행령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00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강 의 진 행
Ⅲ. 강의의 목표

- 선택형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쟁점을 정리 할 것입니다.
- 사법시험에 출제된 쟁점은 수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출제도 당분간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제2판)에 정리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 또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도 모두 정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실무적으로 중요해서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과 최근 상법 학계의 경향까지도 정리할 것입니다.
- 또한 상법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과 달리 전형적인 답안작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의 또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그 외 출제될 것은 최근 개정법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법의 중요 내용도 모두 학습할 것입니다.
- 특히 올해는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출제가 유력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판에 해당 부분을 모두 정리하였고, 결론부분도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따라 답안에 서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김남훈 변호사 강의를 계획서

상법 단권화정리

강 의 진 행

IV. 맺음말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A회사는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사 甲은 이를 감추고 사옥매각대금으로 확보한 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안을 작성하였다. A회사 이사회는 전원찬성 결의로 이 배당안을 승인하였고, A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채권자 Y는 5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문제〉

4. Y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A회사 주주들 및 이사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30점)

[2015 상법 진도별모의고사 7회차 문제]

- A주식회사는 2015. 5.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주도하에 이익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여 배당하였다. 그 당시 A주식회사의 총자산은 80억 원, 부채는 50억 원, 자본준비금 5억 원, 이익준비금 8억 원, 미실현이익은 12억 원, 주식의 액면가 1만 원, 발행주식총수 5만주이었다.

〈문제4〉 위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A주식회사의 채권자 M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 (25점)

-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4번 문항은 수험가에서 출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불의의 문제’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장점은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쟁점이라고 단권화 강의시간부터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쟁점을 적중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김남훈 변호사의 출제 예상이 또 다시 100% 적중하였다는 것을 내년 시험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

상법 단권화정리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간	과목	강 의 내 용
1	5/25(목)	오후	회사법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설립
2	5/26(금)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3	5/29(월)			설립중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설립관여자의 책임
4	5/30(화)			종류주식 / 주주와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	5/31(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6	6/1(목)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이사와 이사회
7	6/2(금)			대표이사
8	6/5(월)			이사의 의무와 책임 /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9	6/6(화)			감사 / 신주발행
10	6/7(수)			자본금의 감소 / 사채 / 이익배당
11	6/9(목)	오전	어음·수표법	어음행위 / 어음의 선의취득
12		오후		어음항변 /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13	6/10(금)	오전		어음상 권리의 발생 / 이전
14		오후		어음상 권리의 행사 / 소멸 / 기타의 제도 / 수표
15	6/12(월)	오전	상법총칙·상행위법	상인 / 상업사용인 / 상호 / 상업등기
16		오후		영업양도 / 상사매매 / 익명조합
17	6/13(화)	오전	보험법	상행위 각론
18		오후		보험법총론 / 손해보험 / 인보험